



부처님 오시었습니다.
때는 푸르려 맑은 바람의 날, 뭉비니동산 무우수나무 아래,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 삼계가 괴로우니,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그러하여 빛이 되었습니다.
2010년 5월, 그 빛이 더욱 간절하여 큰 결 올림과 또 올립니다.

박준수
화가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하는 세상

봉축특집호 56면 발행 지면 안내

- A** 아소까 리더십 A2
정치인들이여, 저 아소까 대왕을 보시오
- 교계 지도자 · 이웃종교 봉축 법어 · 메시지 A10~12
오늘은 부처님이 미완의 여래로 태어나서 해탈의 길을 열고 우리 곁에 오신 날입니다. 법신은 불멸하여 온 누리에 그 모습을 나눕니다.
- 선지식을 찾아서 - 진제 스님 A14~15
수행 통해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는 것이 부처님 오신 뜻...
- B** 장선우 감독 B1
그가 제주에서 스승을 만났다. 행복하고 슬프다고 한다. 스크린 가득 부처님 법을 펼칠 날은 언제일까?
- 생명평화의 현장 - 여강 한마당 B2
- 레게 소울 밴드 윈디씨티 B3
부처님도 아티스트... 그들이 노래하는 이유
- 재즈보컬리스트 웅산 B5
열일곱 살에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출가했죠. 재즈는 저를 늘 금금하게 만드는 음악입니다. 올 겨울 병원 음악회 준비 중...
- 심선으로 부처살이 B8~9
계율은 현대사회의 실천윤리
- 세계의 부처님오신날 B24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일본, 대만, 네팔, 홍콩, 말레이시아... UN 매년 5월 보름 벅사데이 축제
- 소설 - 신발의 행방 B26~27
집에 도착한 그는 신발을 고이 벗어놓고, 목욕을 한 다음 다시 자신의 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또 나오지 않았다...

부처님오신날
남북동시법회 봉행

부처님오신날인 5월 21일, 한반도 전역의 모든 사찰에서 한마음으로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남북동시법회가 봉행된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참가자 일동 명'이 발표된 남북공동 발원문에서 남북 불교계는 "통일된 부강한 지상정도가 될 때까지 남·북의 사부대중은 불국토를 향해 발걸음 맞춰 함께 나가겠다. 우리 손으로 상호존중과 평화체제의 정착, 신뢰의 통일 민족공동체를 이루겠다"고 발원했다.

21일 오전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봉축법요식에는 정관계 인사, 이웃종교 지도자들과 주한외교사절 등 1만 여 사부대중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동성 기자**

제7회 불자대상
한주호 한혜숙 조용석

제7회 불자대상으로 故 한주호 준위와 방송인 한혜숙씨, 대불련 조용석 중앙간사자 선정됐다.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자승·총무위원장)는 5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상식은 21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진행된다. **조동성 기자**

■ 봉축칼럼

부처님, 중도의 등불을 밝히시다

만일 돈을 많이 벌려고 간다면 캄캄한 밤길이 환하게 밝아질 수 있을까. 만일 절대 권력을 손에 들고 간다면 질투의 밤길이 대낮 같이 밝아질 수 있을까. 만일 무엇이든지 때려눕힐 수 있는 강한 체력을 가지고 간다면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천지가 개벽을 하고 검은 개미가 태양을 삼키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러한 이적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밤길이 캄캄한 것은 재벌이건 권력자이건 강한 체력이건 다 마찬가지이다. 결국 돈도 권력도 체력도 빛은 아니다. 아니 어둠인 것이다. 때문에 어둠 속에서는 천하에 없는 것을 다 가졌어도 등불이 없으면 그것들은 소용없는 것이 된다.

부처님은 등불이시다. 빛이시다. 평범한 인간으로 출발해서 지고한 원력을 승화하고 또 승화한 결과, 마침내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되신 것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다섯 비구에게 최초로 하신 설법은 다음과 같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극단의 길이 있다. 하나는 쾌락의 길이요 또 하나는 고행의 길이다. 사문은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배워야 한다. 여래는 바로 이 중도의 이치를 깨달았다."

이 설법에 근거하면 인간 쇠가모니가 등불이 되게 하고 빛이 되게 한 것은 중도의 이치다. 이 중도의 이치를 깨달았으므로 이제까지 중도의 이치를 알지 못했던 그 어둠이 밝은 등불로 또는 빛으로 전화된 것이다. 그것이 벌써 2600여 년 전의 일이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 등불과 빛으로써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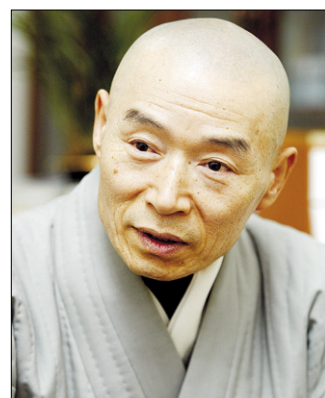
이다. 그것이 곧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등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들의 무지와 욕망에서 비롯된 행위들의 어둠을 대상으로 한 개념이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무지한 한, 그리고 인간이 자기 욕망에 집착하는 한, 거기서 나온 모든 생각, 모든 판단, 모든 행위들은 결코 밝은 것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들은 어둠의 농도를 더욱 짙게 할 뿐이다. 그러므로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등불과 빛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 빛을 의지함으로써 적어도 무지한 어둠쯤은 청산할 수 있는 까

좌우 편가르기 · 경직된 권력
여기에 부처님께서 오시길

이다. 이를 전제로 해서 금년의 부처님오신날에는 꼭 부처님이 오셨으면 하는 캄캄한 곳이 있다.

하나는 편 가르기를 하는 곳이다. 소위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좀 진보적이고 건전한 사고를 하는 측들을 좌파라고 매도해서 다양함의 원형인 사회성을 부정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행위이다. 수레는 하나의 바퀴만으로 수레의 구실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방향도 제대로 잡을 수 없게 된다. 수레는 좌와 우의 두 바퀴를 다 갖추었을 때 비로소 수레로서 완벽한 것이다.

이른바 보수와 진보는 수레의 두 바퀴이다. 그러므로 보수와 진보가 선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발전케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



황현 스님 조계종 전 교육원장

좌와 우의 편 가르기를 하는 곳에 부처님이 오셨으면 한다.

또 하나는 경직된 권력이다. 지금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에는 소통 부재가 심각하다. 냉소와 냉소, 외면과 외면이 이것이 피차 간에 높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 이유는 4대강 사업 때문이다. 이 4대강 사업을 놓고 강행과 반대, 이런 대립으로써 서로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하여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는 일에 너희들이 무슨 시비냐?"하는 것 같고,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 "4대강은 하면서 마치 곡식 밭의 잡초처럼 취급하고 있다. 이것은 불구적인 사고로써 다양함의 원형인 사회성을 부정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행위이다. 수레는 하나의 바퀴만으로 수레의 구실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방향도 제대로 잡을 수 없게 된다. 수레는 좌와 우의 두 바퀴를 다 갖추었을 때 비로소 수레로서 완벽한 것이다.

이른바 보수와 진보는 수레의 두 바퀴이다. 그러므로 보수와 진보가 선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발전케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

2554 BUDDHA'S BIRTHDAY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증정 도림 법전

- | | | | |
|---------|----|------|----|
| 원로회의의장 | 종산 | 총무원장 | 자승 |
| 중앙총회의의장 | 보선 | 교육원장 | 현응 |
| 호계원장 | 법등 | 포교원장 | 혜총 |

